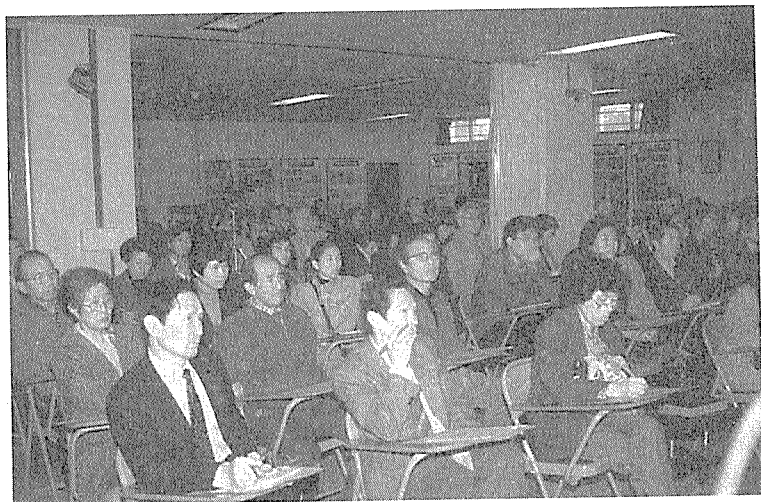


부산지부, 건강관리 공개강좌 시작

4월부터, 매월 네째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직할시지부는 4월부터 매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갖기로 하고 그 일정을 밝혔다.

매월 네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지부 홍보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공개강좌는 각급 학교 양호교사, 기업체 보건담당자, 협회 검사자 중 유소견자, 특별회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건협 부산지부는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면, 1년동안의 공개강좌 호응도를 보아서 가능한 내년부터는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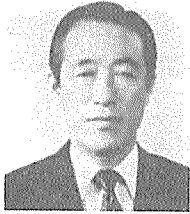
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부의 월별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협부산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 ▲4월 : 고혈압관리
- ▲5월 : 위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 ▲6월 : 심장질환 관리 및 예방
- ▲7월 : 당뇨병관리
- ▲8월 : 간장질환의 치료와 관리
- ▲9월 : 뇌졸중관리
- ▲10월 : 갑상선질환의 예방 및 관리
- ▲11월 : 신장질환의 예방 및 관리
- ▲12월 : 현대인의 성인병 관리

崔振學 회장,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 방문

건강관리사업 국제 교류에 새로운 계기 마련



崔振學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崔振學 회장이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최회장은, 학생건강관리 관련된 일본 법규관계, 예방의학사

업 중앙회의 시설, 홍보현황 등을 돌아봤다. 또한 최회장은 현재 상호협조체제를 갖고 있는 예방의학 사업중앙회와 일본 의사회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돌아보기도 했다.

일본 건강관리사업 현황 전반을 둘러본 이번 방문은 건강관리사업 발전을 위한 한·일간 국제교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 소화기병학회 학술대회에도 참석, 최근 일본의 소화기병의 근황도 돌아봤다.

혈액형·소변검사 등 무료검사 실시

건협, 4월 건강관리 강조주간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대 국민 건강의식 계몽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건강관리 강조주간을 올해는 4월 13일부터 18일로 정하고, 지부별로 무료 건강상담 및 검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건강관리 강조주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액형·소변·혈당(당

뇨병)·심전도 검사등과 함께 기생충검사와 투약을 지부 실정에 따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그외에 건강관리 공개강좌, 보건관련 자료 배부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건협은 이외에도 마스크를 이용한 건강계몽, 보건관련자료 배부, 영상매체 상영 등 대 국민 계몽활동을 관련단체 등과의 협조하에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했다.